

# 9차 APFSD - 아태지역 SDGs 이행 모니터링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이하 UN ESCAP)는 UN 고위급정치포럼에 앞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SDGs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인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이하 APFSD)을 개최함. 지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Building Back Better from COVID-19 While Advancing Full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in Asia and the Pacific”을 주제로 9차 APFSD가 개최됨. APFSD는 UN ESCAP은 APFSD 개최 전, 2022년도 아태지역의 SDGs 이행 모니터링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함. 이번 이슈팡팡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과 APFSD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함.

## 1. 2022년 APFSD 포럼 개요 및 점검목표

### 1) APFSD 개요

- 포럼명: Ninth Asia-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9차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 APFSD)
- 일정: 2022년 3월 28일 ~ 31일
- 장소: 태국 방콕
- 주제: Building back better from COVID-19 while advancing full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in Asia and the Pacific
- 참가국: 아시아 태평양 국가 등 46개국 및 옵저버 6개국<sup>1)</sup>
- 점검 목표: SDG 4, 5, 14, 15, 17<sup>2)</sup>

### 2) 점검 목표 논의 내용

SDG4	교육 회복, 학습 위기 해결, 교육 시스템 혁신, 교육과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춤. 안전한 환경에서의 등교, 유아교육 및 보육의 보편화, 청소년의 기술 개발 강화, 가족 및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강력한 연계 구축, 공교육의 효율성 강화, 공평한 지원 매커니즘과 포괄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매커니즘 강화, 향후 보건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강화 등을 강조함.
SDG5	성평등 및 여성 권리 제고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논의함. COVID-19 관련 지원 시 여성 기업가와 근로자의 혜택 보장, 적당한 비용의 접근성 높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가정 내 공평한 책임 분담을 위한 가족 정책, 여성 지도자들의 정치 참여 보장, 성별 통계 격차 해소 등 광범위한 정책 과제를 언급함.
SDG14	해양 보호 구역 조치, 불법 어업 관행 방지 조치, 폐기물 및 오염에 관한 데이터 품질과 가용성 향상, 해양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술적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집을 위해 지금 조달 격차를 파악하고 민관 협력과 같은 통합적 접근법을 통해 UN 해양 과학 10개년을 활용할 것을 강조함.
SDG15	15년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있음을 인지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키워드를 확인함. 자원의 과다한 사용, 화학 살충제와 비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해결, 생물 다양성 문제의 주류화, 데이터 부족 해결, 민간과 정부 및 국제사회의 자연을 위한 더 많은 재정과 기금 동원, 국제 환경 협약의 이행, 자원 관리 및 조치 원칙 적용
SDG17	인권과 평등에 기초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더 나은 파트너십 기반을 구축할 것을 언급함. 남북, 남남, 삼각 협력을 통해 ICT 접근성 확대, 최빈국 무역의 디지털화 지원, 공공재 제공을 위한 국가 재정 동원, SDGs 달성을 위한 민간 금융 활용을 언급함.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및 관리와 혁신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함.

출처: Draft Report of the Ninth Asia-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 1) 회원국: 아르메니아, 호주,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중국, 북한, 피지, 프랑스, 조지아, 홍콩,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카자흐스탄,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마셜제도, 몽골, 미얀마, 나우루,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한국, 러시아,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동티모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영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옵저버: 핀란드,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페루, 스웨덴, 스위스

### 2) SDGs 17개 목표

1. 빈곤퇴치
2. 기아종식
3. 건강과 웰빙
4.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6. 깨끗한 물과 위생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9.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10. 불평등 감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 기후변화와 대응
14. 해양생태계 보존
15. 육상생태계 보존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17. 지구촌 협력

(출처: 알기쉬운 지속가능목표 SDGs)

## 2. 아시아-태평양 2030 의제 이행 현황

- 2022년 3월 17일, UN ESCAP은 APFSD를 앞두고 [아태지역 SDGs 이행 보고서 2022](#)(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 2022)를 발간함. 해당 보고서는 아태지역의 전반적인 SDGs 이행 현황, 아시아-태평양 5개 지역(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태평양)의 이행 현황과 인구 특성별 불평등 및 취약성을 측정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1)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SDGs 이행 현황

- 아태지역의 SDGs 이행 완수는 2065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나, 매년 그 격차가 커지고 있음.
- 코로나 19로 인해 아태지역의 SDGs 이행이 더뎠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개발 과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아태지역 중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곳은 전무함.
- 9, 17번 목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2030년까지 달성하기에는 속도가 느림.
- 12, 13번 목표의 달성은 후퇴하는 양상을 보임.
- 4, 5, 6, 8, 11, 14번 목표의 이행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정체되어 있음

### 2) 지역별 SDGs 이행 현황

-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1, 9번 목표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2030년까지 17개 목표 중 어느 것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함.
- 모든 아태지역에서 12, 13번 목표 이행이 후퇴하고 있음.
- 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6, 10, 11, 14번이 후퇴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에서 6, 11, 14번이 후퇴하고 있음.
- 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서 11번이 후퇴하고 있음.

### 3) 이행 현황 분석

- 아태지역의 발전은 평균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뚜렷한 일부 집단을 배제하고 있음. 여성, 농촌 인구, 빈곤 가구를 포함한 취약 계층은 일반적으로 취약성에 더 직면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식량안보, 교육, 생계의 위협을 더 많이 받음.
- 2017년 이후 아태지역에서 측정 가능한 지표가 2배 증가했으나, 여전히 169개 목표 중 34%에 해당하는 57개 항목이 측정 불가 상태임. 특히 성평등(목표 5), 해양생태계(목표 14),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목표 16)의 데이터 가용성이 제한적임.

## 3. APFSD 및 SDGs 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

### 1) Reality of Aid의 APFSD에 대한 의견

- The Reality of Aid Network<sup>3)</sup>는 APFSD에서 민간 재원의 유입에 따른 문제, CSO의 역할 촉진, 시스템 변화와 개발 경의를 적절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함.
- SDGs 이행 달성을 위해 인간의 재원을 유입하는 파트너십의 이면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함. 기업이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환경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발전을 저해하여, 소외 계층 및 취약 계층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함.
- 지역 단위에서 2030 의제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알고 있는 CSO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함. 많은 국가들이 VNR(Voluntary National Review, 자발적 국가보고서)에서 시민사회를 제외함으로써 취약 계층에 대한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지적함.
- 개발 시스템의 변화와 개발 경의의 필요성을 언급함. 현재 시스템이 SDGs 달성을 지연시켜 소외계층의 생명, 생계, 권리, 안보를 위협하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사람 중심, 권리 기반, 기후 탄력적인 미래를 추진하는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함.

3) The Reality of Aid Network (RoA)는 빈곤 퇴치 정책과 국제 원조 체제의 빈곤 퇴치 정책 및 이행 분석과 애드보커시에 초점을 맞춘 NGO 이니셔티브로, 약 170개의 단체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2) 한국 시민사회 SDGs네트워크(SDGs시민넷)의 SDGs 이행에 대한 의견

- SDGs 시민넷에서는 2022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 및 시사점을 소개하고,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소개함.
-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SDGs 이행이 나은 상황이며, 2021년 12월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sup>4)</sup>을 통해 전 분야를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 방향으로 인해 한국의 SDG 5, 12, 13, 14, 15 및 시민사회 참여가 후퇴하여 SDGs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함.
- 풀뿌리 지속가능발전 운동이 주류화될 수 있는 기회가 목전에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속의공론장이 열릴 수 있기를 염원함.

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UN SDG 거버넌스 구조 혁신이 담긴 메시지를 국가 차원 거버넌스로 반영시킨 것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시사점이 있음.  
- 대통령 직속으로 경제, 사회, 환경, 재정, 기술, 행정, 데이터, 협치를 포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 국가SDG 수립 및 이행 점검 시 이해관계자 속의공론장 마련 등 소수 전문가 위원회 중심 의사결정 체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진일보

#### 참고

- 1) Draft Report of the Ninth Asia-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 ESCAP <https://www.unescap.org/events/apfsd9>
- 2) 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 2022: Widening disparities amid COVID-19, UN ESCAP <https://www.unescap.org/kp/2022/asia-and-pacific-sdg-progress-report-2022>
- 3) Beyond UN's Build Back Better: Three things the APFSD did not tackle, The Reality of Aid Network <https://realityofaid.org/apfsd-2022/>
- 4) 2022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주요 논의 동향,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https://sdgforum.org/177>

**이슈팡팡**은 국제개발협력관련 주요 동향을 전달합니다.

**발행 기관** KCOC 정책센터 **감수** 윤경호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주요 주제** 국내외 ODA정책, SDGs,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투명성/책임성 등